광주 의료산업 업체수·매출·고용 급신장

2002년 2개 업체 2억 매출 22명 고용→2015년 172개 업체 2372억 매출 1617명 고용

경제활성화·광주알리기 기여

광주의 의료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의 집중 육성에 힘입은 의료산업이 급신장하면서 매출액·고용이 크게 늘고 수출 등 해외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해외관광객 유치의 핵심 분야로도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권 연대와 협력을 통한 '광주정신'의 확산에도 의료분야가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은 지난 2002년 2개 업체에 매출 2억원, 종업원 22명으로 극히 미미하게 출발했으나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오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체수가 172개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도 2372억원으로 급신장했고 종업원 역시 1617명으로 늘어 지역 고용확대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9년과 비교해 기업 수는 273%(126개), 매출액은 293%(1769억원) 늘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생체의료용 소재부품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해 산·학·연·병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및 기업 마케팅 지원으로 가격과 제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생체의료용소재부품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를 구축 중이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치과용정밀장비 및 부품지역혁신센터 구축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등 마케팅지원을 위한 미래형생체부품소재산업 육성 ▲콘텍트렌즈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료산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하다. 지난해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 분야에서만 무려 440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전남대·조선대병원과 시엘병원 등 지역 병원들은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한 광주의료관광·뷰티산업 설명회에 참석해 몽골시장 선점의 토대를 확보했다. 이들은 광주의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와 함께 심혈관치료, 장기이식술 및 관절치료, 불임클리닉 등 대표 의료기술을 홍보하고 심장병수술, 복강경담낭절제술 등을 시술해 광주의 높은 의료수준을 선보였다.

접근성과 관련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관광객 유치도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의 외국인환자 유치는 2744명으로 전년 1850명에 비해 48%가 늘었으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로 여전히 미미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 의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2017년 말까지 점유율 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사업 추진체계 강화·정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홍보·마케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료분야는 광주정신을 전파하는 첨병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의료봉사단체가 지난 2014년 6월 캄보디아 캄퐁스퓨즈 트라패잉마을에 개소한 광주진료소는 의료시설이 열악한 현지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간 6차례에 걸쳐 광주의료봉사단체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술을 통해 광주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네팔에 제2광주진료소도 개소를 준비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광주시 선정 국비 14억 확보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광주호 호수생태원 주변에 탐방로 1.4㎞를 설치되고, 광주공항 인근 신촌근린공원에 경관숲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올해 초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 공모에서 누리길 조성사업(환경·문화 주민지원사업)과 생활공원조성사업(신촌근린공원)에 응모해 국비 14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편익과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누리길조성사업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주변에 국비 10억원과 시비 3억원을 투입해 무등산옛길~호수생태원~담양군 누리길을 연결하는 탐방로 1.4㎞를 설치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

고려정밀(주) 직원들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현지 기업인들을 상대로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중기, 유럽·CIS시장 개척 활기

고려정밀 등 10개사 참여 수출MOU 132만 달러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유럽-CIS 시장 개척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광주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헬싱키, 민스크, 키예프 등 3개 나라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펼쳐 현장조립형 광커넥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LDE 식물재배기, LED 광고판, 의료·미용제품 등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10월1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10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핀란드 헬싱키, 벨라루스 민스크, 우크라이나 키예프 등 유럽-CIS 3개 지역 대상 시장개척활동을 통해 수출계약 153만 달러, 수출MOU 132만 달러, 수출상담 1억62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이 가운데 프레스금형업체인 고려정밀(주)은 헬싱키에서 Veme OY사와 전화상담 중 긴급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왕복 600㎞ 거리의 회사를 찾아 3만6000달러 수출계약을 했다. 이 계약을 시작으로 바이어와 향후 제작할 금형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확인, 이번 수출이 북유럽 진출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과 화학연료 보관을 위해 금속과 목재를 대체하는 특수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오양물산(주)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상담장에서 Eldi사의 샘플요청을 받고, 품질확인 후 수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절차가 필요 없어 바로 주문받기로 했다. 주문 물량은 컨테이너 20피트 기준으로 3개월 분 150만 달러 상당을 선적하고 점차 수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복합PP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팬케미칼은 키예프에서 Inter Plast사와 10만 달러 견적서와 샘플 테스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키로 MOU를 체결했다.

온적외선 온열기를 생산하는 (주)명신메디칼에는 샘플 구매요청이 쇄도했다. FDA와 CE 인증을 갖추고 있는 ㈜명신메디칼은 앞으로 자체 기술협력팀을 구성해 키예프를 다시 방문키로 했다. 또한, 베너피트사 등 2개사와 15만 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충장축제, 전국 최대 문화축제 자리매김"

5일간 일정 마무리

국내 최대 도심 길거리 축제인 '제13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3일 폐막식을 끝으로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추억을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펼쳐진 올해 충장축제에는 LED조명과 대형 애드벌룬 등을 활용한 '야간 퍼레이드'가 처음으로 선보여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 동구(청장 김성환)는 3일 "올해 충장축제 개최 기간 내내 비가 내렸지만 준비된 3개 부문 29개 프로그램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돼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전국 최대 문화관광축제의 면모를 과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1일 진행된 충장축제 메인 프로그램인 '거리퍼레이드 경연대회'에만 10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광주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 도시축제로의 성공가능성을 입증하며 그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박명성 총감독이 연출한 개막행사는 국내 최정상급 가수와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꾸미며 충장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또 축제의 주제인 '추억'과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100세를 맞은 이정자(동구 계림동) 할머니와 13세 구동규(서석초 야구부 주장)군이 영화 소품인 슬레이트로 개막선언을 해 관심이 집중됐다.

76개 팀 8000여명이 참가한 퍼레이드는 예년보다 더욱 화려하고 풍성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축제 때마다 아련한 향수를 선사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추억의 테마거리'와 '추억의 고고장'에도 관람객들이 몰렸다. 축제와 함께 진행된 '2016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를 통해 도심상권은 모처럼 활기로 넘쳐났다.

김성환 청장은 "문화전당 개관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충장축제가 명실상부 아시아로, 세계로 힘차게 뻗어가는 동구의 두터운 문화 저력과 성장가능성을 안팎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충장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장흥통합의학박람회 5일만에 관람객 25만명

외국인도 1만4000명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개막 5일만에 관람객 수 25만명을 넘어섰다. 33일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목표 관람객 95만명의 4분의 1수준이다.

3일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박람회 개막 이후 첫 주말부터 개천절을 포함한 3일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단위 가을철 행락인파가 몰렸다. 통합의학박람회가 6회째 개최되면서 재방문객이 늘고, 외국인 입장객도 1만40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제행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 조직위의 판단이다.

주제존, 체험존, 교류존, 건강존 4개의 구역으로 나눠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라는 점도 입장객 증가에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합의학관, 뷰티·미용관, 스트레스 통증관, 만성성인병관 등으로 구성된 체험존의 인기가 높았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 학술대회, 아시아·태평양 오스테오파시 의학 컨퍼런스, 생활습관의학&웰니스 컨퍼런스 등 국제학술대회에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볼거리 행사로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건강댄스 페스티벌', '퓨전한복사랑공연', '광주시낭송대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주무대에서 이어졌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양식 메기 충청도 간다

장성 '자연민물' 100t 첫 출하

전남의 양식 메기가 충청도로 팔려나갔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내수면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치한 기업이 본격적인 메기 출하에 나선 덕분이다.

3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투자유치한 (주)자연민물에서 양식메기 100여t을 첫 출하했다. (주)자연민물은 지난 4월 광주에서 장성으로 이전, 22억원을 투자해 양식장 9442㎡를 조성한 바 있다.

이번에 출하하는 메기는 지난 4월 어린 메기 27만 마리(4~6cm)를 입식, 6개월 동안 300~700g으로 키운 것이다. 싯가 3억원어치로, 광주·전남는 물론 충청도의 600개소 이상의 도·소매업소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주)자연민물은 2017년까지 기존 양식장 인근에 3만3000㎡를 추가로 조성해 판매망을 경상도와 수도권까지 늘리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민물고기 양식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반)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2.40%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본점 (062)223-5506

구.도청↑ ●충장파출소 광주세무서 ● ●국민은행 ●NC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